

임플란트주위염 - 비외과적 치료의 현실과 전망

양 승 민 / 성균관대학교 의과대학 삼성서울병원 치주과

임플란트주위염은 임플란트를 식립한 환자에 발생하는 연조직 및 경조직의 소실을 야기함으로써 임플란트 치료를 하는 치과의사에게는 피할 수 없는 구강질환 중 하나입니다. 본강연에서는 최신 발표된 유럽치주병 연합회 임상진료지침을 소개하고 임플란트주위염의 비외과적처치의 방법과 치료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안 에 대해 소개하고자 합니다.

임플란트주위염에 대한 비외과적처치의 주된 목적은 임플란트 주변의 치면세균막관리와 염증의 조절을 통해 경조직의 상실을 막거나 최소화하고 연조직의 안정성을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특히 상대적으로 주목받고 있지 못하지만 비외과적 처치의 다른 목적 중 하나는, 비외과적처치를 통해서 상기 목적을 얻지 못해 수술적처치를 시행하는 환자의 경우, 환자의 치면세균막관리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입니다. 2000년 Lang 등에 의해 소개된 임플란트질환의 유지관리 방법인 Cumulative Interceptive Supportive Therapy (CIST)는 임플란트 주위질환의 시작을 예방하고 임플란트주위염으로의 진행을 억제하기 위해 최대한 빨리 치료하며 이를 통해 임플란트 상실을 예방하는 방법입니다. 여기에서 제시된 기계적 세정, 소독제를 통한 세정, 전신 또는 국소적 항생제의 사용 등이 비외과적 처치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 강연에서는 위에서 제시된 비외과적 처치의 임플란트주위염 치료 효과를 알아보고 임상적으로 비외과적 치료의 효과를 증진시켜보는 방법을 제시해보고자 합니다.

위에서 언급한 치면세균막관리를 위한 임플란트주위염의 위험인자의 조절은 비외과적, 외과적 처치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번 강연에서는 조절 가능한 위험인자 중 보철물의 형태를 조절함으로써 비외과적 처치의 효과를 극대화방법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또한 임플란트주위염 처치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새로운 후보군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학력 및 경력

- * 서울대학교 치과대학 학사, 석사, 박사
- * 서울대학교병원 인턴, 치주과 레지던트, 전문의
- *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대학 visiting scholar
- * 현, 성균관대학교 의과대학 삼성서울병원 치주과 교수
대한치주과학회 총무이사